



해 외 양 계 뉴 스

프랑스

1인당 소비량 265개 중 가공란 소비는 48개

최근 프랑스에서는 일반란의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가공란의 소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의 국민 1인당 계란 소비량 중 가공란의 소비를 보면 '91년 265개중 18%인 48개를 소비하였는데 '86년 당시에는 266개 중 34개를 소비해 가공란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소비량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란의 소비증가 요인으로는 주부들의 활동증가, 가족구성의 변화, 조리의 편리성, 외식증가, 위생상태 양호 등으로 분석되었다.

프랑스내에서 생산되는 가공란은 연간 약 15만톤(약 30억개)으로 추정되며 15개의 가공공장에서 가공란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으며 큰 회사의 경우 1~2만톤 까지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계속되는 채란업의 불황에 고심

영국채란협회(BEA)에 따르면 생산원가의 상승과 계란가격의 하락으로 영국 채란산업이 앞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 밝혔다.

'91년 계란가격이 생산비 이하를 기록했는가 하면 '92년에는 이보다 더 낮게 거래되어 큰 타격을 입었는데 더우기 사료비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의 증가로 채란업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란업의 존립이 힘들며

결국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95년까지 채란업을 정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인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영국채란협회장인 Peter Humphrey씨는 채란업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였다.

일본

수입된 중국산 옥수수 품질문제 대두

일본 곡물거래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일본에 도착된 중국산 옥수수중 수분함량이 초과되고 곰팡이가 슬어 있는 선적분이 계속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금년 초에도 수입한 중국산 옥수수의 수분함량이 상한선인 15%를 초과하여 18%까지 나온 사례가 있었으며 그후 중국산 옥수수의 품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에 다시 품질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실수요자인 사료회사들이 인수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옥수수가 잘못 건조되면 곡립이 손상되어 후레이크 사료제조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일본측은 밝혔다.

대만

육계산업 육성에 주력

'80년 중반이후 젊은이들 사이에 패스트푸드 음식문화가 정착되면서 육계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육계산업의 육성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증가는 계열화사업에 의한 다양한 상품들이 선을 보인 결과로 젊은층은 물론 주부들에게 까지 인기를 모으고 있다.



△대만 토종닭 증계

대만의 1인당 육류소비량 비교

단위 : kg

구분 년도	소고기	양고기	돼지 고기	가금육	계란수 (1)	우유	생선류
1965	0.39	0.06	16.77	1.99	39	4.42	27.74
1970	0.64	0.08	18.93	5.60	69	10.45	34.18
1975	0.94	0.17	17.51	8.36	87	14.98	35.56
1980	0.93	0.16	26.18	12.28	134	24.96	38.74
1985	1.66	0.39	34.23	18.02	186	36.35	38.41
1986	1.89	0.48	34.69	19.78	182	44.01	37.46
1987	1.89	0.54	34.83	20.43	191	50.42	44.89
1988	2.18	0.62	33.86	21.12	181	57.80	45.83
1989	2.23	0.71	34.44	22.92	198	60.29	48.37
1990	2.12	0.61	35.82	23.31	206	63.00	47.43

참고 : (1)계란수는 계란 1개의 무게를 60g으로 환산

자료 : Council of Agriculture

반면 오리고기는 닭고기에 비해 가격이 비싸 소비부진 현상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